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출발 2010, 제2의 창학원년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光州日報

저신용, 저소득자를 위한
"햇살론" 업무개시
동양저축은행 226-0180

광주 25/29℃ 목포 25/29℃ 여수 24/28℃

단기 4343년 (음력 7월 2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광고 문의 (062)227-9600 kwangju.co.kr 제18749호 1판 2010년 8월 11일 수요일

태풍전야 10일 제4호 태풍 '뎬무'가 제주도에서부터 빠르게 북상하면서 전남 서남해안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 목포시 영산동 북항선착장에 인근 압해도, 고하도 등지에서 피항한 선박들이 한데 모여 있다. /목포=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일자리 제법 늘었다

금형산업 활기·콜센터 잇단 유치

2분기 취업자 증가율 전국 최고

금형산업 활성화와 잇단 콜센터 유치에 힘입어 광주지역 고용시장이 활기를 되찾아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2·4분기 지역경제 동향'에 따르면 올 6월까지 광주지역 취업자수는 67만5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3.8% 늘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국 평균 증가율은 1.8%였다.

광주지역 취업자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자동차 등의 수출 호조로 금형산업을 비롯한 제조업 취업자수가 늘어난데다 더케이손해보험 등 잇단 콜센터 유치로 일자리가 크게 증가한 덕분이다.

또 농번기를 맞아 농업부문에서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50~60대 고령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자동차, 기계장비 등 수출과 내수가 증가하면서 광주지역 광공업 생산 증가율도 전년 동기 대비 지난해 4·4분기는 20.5%, 올 1·4분기 32.1%, 2·4분기는 21.1%로 3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광주는 경기(29.1%)를 비롯해 대구(28.3%), 인천(24.2%) 등과 함께 2·4분기 광공업 생산증가율이 높은 지역으로 꼽혔다.

하지만 전남은 올 2·4분기 취업자 수가 90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9% 감소했다. 건설업,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부문의 침체가 고용부진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광공업 생산 증가율도 9.2%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3년만의 태풍 강타 전남 초비상

'뎬무' 오후 3시께 여수 상륙…선박 속속 피항

3년 만에 한반도를 찾은 제4호 태풍 '뎬무(DIANMU)'가 11일 새벽 전남 서남해안에 상륙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 자치구, 각 시·군이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태세에 돌입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0일 오후 5시를 기해 광주시와 전남 22개 시·군에 태풍주의보를 발효했다. 또 남해서부 전 해상에 태풍경보가, 서해남부 전 해상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되면서 남해안 55개 항로 중 20여개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 운항이 전면 중단됐다.

태풍 뎬무는 11일 새벽 3시께 서귀포 북서쪽 약 90km 부근 해상으로 이동, 이날 오후 3시께 여수 북쪽 약 60km 부근 육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에 40~100㎜(많은 곳은 250㎜ 이상)의 비를 내릴 전망이며,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태풍은 12일 독도 서남서쪽 130km 부근 해상으로 빠져나가 13일 오후 3시께 일본 동쪽 해상으로 이동해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지역은 11일 오후 6시 이후 남서쪽부터 점차 갤 것으로 예상된다.

'뎬무'가 전남 남해안을 관통할 것이라는 예보에 신안 흑산도항, 목포항, 여수 국동항 등 전남지역 주요 항만에는 태풍을 피하려는 선박들이 속속 입항하고 있다.

전남도는 등산객 고립을 막기 위해 성삼재~노고단 구간을 제외한 지리산 입산을 통제하고, 해수욕장은 현지 사정에 따라 입수 통제 또는 시설물 철거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 재해경보시스템을 통해 범람 우려가 있는 계곡과 유원지의 피서객을 통제하는 등 행락객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각 시·군에 지시했다.

이와 함께 방재담당 공무원들을 비상 근무하도록 하고 읍·면·동별로 재해 위험지구와 각종 공사장 등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했다.

광주시는 10일 밤부터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해 가동에 들어가는 한편 상습침수나 토사유출 가능성이 있는 재해 취약지역을 일제 점검하도록 각 자치구에 당부했다.

/김지을·양수현 기자 dok2000@

2002년 '루사' 3848억 피해…3년전 '나리' 10명 사상

중형급 태풍 제4호 '뎬무(DIANMU)'가 한반도에 상륙했다. 이는 2007년 9월 제주도를 관통하며 광주·전남지역에 10명의 사상자를 냈던 태풍 '나리' 이후 3년 만이다. 최근 10년 동안 광주·전남지역에 큰 피해를 준 태풍은 지난 2002년 늦여름 찾아와 광주·전남에서만 17명 사망, 3838억원의 재산피해를 안긴 '루사'였다.

◇나리(NARI)=2007년 9월 13~17일까지 전남지역에서만 사망 3명·부상 7명을 내고, 도로 161곳·하천 411개소·주택 1834동이 침수, 파손되는 등 피해액이 783억원에 달했다.

◇매미(MAEMI)=2003년 9월 6일에 발생한 중형급 태풍으로 전남지역에서 사망·실종 12명 부상 22명 등 34명의 인명피해를 냈으며, 1164억원의 피해를 입혔다.

◇루사(RUSA)=2002년 8월 30일에 발생했으며, 중심 최저기압은 970hPa. 광주·전남에서 17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또한 3848억원의 재산 피해를 안겼다. /양수현기자 yang@

日 총리 "한국 뜻 반해 식민지배"

조선왕실의궤 가까운 시일에 반환 약속

李대통령 "행동으로 실천하는 게 중요"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10일 한국에 대해 "식민지 지배가 가져온 다대한 손해와 고통에 대해 다시 한번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관련기사 5면〉

간 총리는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내각회의를 거쳐 발표한 이날 담화에서 "정확히 100년 전의 8월, 일한(한일)병합조약이 체결돼 이후 36년에 걸쳐 식민지 지배가 시작됐다"며 "3·1 독립운동 등의 격렬한 저항에서도 나타났듯이, 정치.군사적 배경 하에 당시 한국인들은 그 뜻에 반하여 이뤄진 식민지 지배에 의해 국가와 문화를 빼앗기고, 민족의 자긍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간 총리는 이어 "역사의 사실을 직시하는 용기와 이를 인정하는 겸허함을 갖고 스스로의 과오를 되돌아보는 것에 솔직하게 임하고자 생각한다"면서 "아픔을 준 쪽은 잊기 쉽고 받은 쪽은 이를 쉽게 잊지 못하는 법으로 식민지 지배가 초래한 다대한 손해와 아픔에 대해 재차 통절한 반성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죄의 심정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일 지식인 1000여명은 지난달 성명을 내고 "한국병합조약은 조선(한국)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된 것으로 원천 무효"라는 내용을 총리 담화에 포함하라고 요구했지만 이번 담화에 이는 반영되지 않았다.

간 총리는 또 "일본 정부가 보관하고 있는 조선 왕실의궤 등 한반도에서 유래한 도서에 대해 한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가까운 시일에 이를 반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가 1965년 국교정상화 당시 문화재협정에서 일부 강탈 문화재를 돌려준뒤 공식적으로 정부 차원의 문화재 반환 의사를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앞으로 일본이 이를 어떻게 행동으로 실천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양국간 현안이나 협력 방안에 대해 지혜롭게 협력해 가자"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한일 정상의 이날 전화통화는 간 총리가 걸어온 것으로 오전 11시부터 20분간 이뤄졌다. /연합뉴스

자율형 사립고 지정
영어 리더 학교
보문고등학교

학교설립 56주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조이 여행사
특가 상품